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36

“우리도 뛴다”

- 2013년 동아시아대회 광주유치위원회

“빛고을 아시아 큰잔치 뛰면서 홍보도 해야죠”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광주에서!”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들이 2013년 광주동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3·1정신을 기리며 ‘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나선다.

위원 13명 전원 참석 결의

이들 13인의 위원들은 지난해 8월 10일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 현관식 및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김창준 위원장(62·합·자유엔씨 대표)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경기대회가 광주에서 열려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치밀한 유치전략을 세우고 대한체육회와 정부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그동안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KOC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 동아시아경기

대회가 광주에서 열려야 하는 당위성과 광주의 준비된 체육인프라들을 설명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도 단 한명의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참가하기로 했다. 2만여명이 모이는 이번 마라톤대회는 3·1정신을 기리며 광주·전남시도민들에게 2013년 동아시안게임 홍보에 가장 적절한 자리기 때문이다.

유치위원회는 이를 위해 시간을 조기에 대회 출전에 대비하고 있다. 김창준 위원장은 찾은 사업장 이동으로 운동시간이 여의치 않지만 평소 등산, 골프, 배드민턴으로 체력관리를 해와 5km 정도는 가볍게 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박종윤(49·우일건설 대표이사) 위원은 평소 골프 및 웨이트트레이닝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있어 10km 입장도 가능하다는 주변의 평. 특히 박위원장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러닝을 생활화 하고 있어 내년에는 하프에 도전하고겠다고 기여. 김정록(68·광주시 태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들이 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윤, 김정록, 장기원, 임광택, 채동석, 김창준, 이정남, 송진희, 신광조, 나경택, 전학철, 김범남, 유광종 위원.

/워치링기자 jrw@kwangju.co.kr

권도협회 명예회장) 위원은 대권인으로서 수련을 계획하지 않아 70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본인은 10km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처음 참가하는 대회여서 5km에 만족하기로 했다는 후문.

평소 체력 단련...코스 완주 자신

장기원(60·호암실업(주) 대표) 위원은 주말마다 무등산 등반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지만 대회 출전을 앞두고 등반거리를 늘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광택(51·진흥건설(주) 대표이사) 위원도 골프와 등반으로 다져진 체력을 보여주겠다고

출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채동석(60·삼성광주전자 부사장) 위원은 매일 아침 조깅과 주말 골프로 단련된 철각을 대회 출전을 통해 짐짓하겠다는 계획. 이정남 위원(51·광주시의회 의원)도 아침 조깅과 테니스로 가꾼 체력을 마라톤을 통해 테스트 해 볼 계획이다.

유일한 흥미점인 송진희(여·48·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 교수) 위원은 웨이트트레이닝과 요ガ로 가꾼 S라인 몸매를 뽐내며 달리겠다고 해 위원들의 출전의욕을 부추기고 있다. 신광조(50·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과 나경택(58·연합뉴스 부국장) 위원은 평소 웨이트트레이닝과 조깅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어 10km 출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 김범남(59·광주시 비서실장) 위원은 최근 후 달리기와 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 내심 10km 입장도 기대하고 있다. 유광종(55·

68세 김정록 위원 “5km 도전”

도시마케팅 지원과장) 위원도 매일 5·18공원에서 조깅과 등산으로 체력을 단련해오고 있다.

김창준 위원장은 “이번 마라톤대회에서 13인의 위원 전원이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완주해 그 뜻을 광주·전남 시 도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훈련 중 발목통증 호소... 전 훈련 합류 불투명

‘응구아 훌훌털고 일어나렴’ 을 시즌 한국시리즈 진출을 꿈꾸는 KIA에 금메달 악재가 발생했다.

국내 동계훈련을 마무리하고 일본 스프링캠프에 합류하려던 ‘재간동이’ 이용규(22)가 발목 부상을 입고 중도 하차할 위기에 놓인 것.

최근 훈련도중 발목 통증을 호소한 이용규는 병원 진단결과, 오른쪽 발목 관절 사이에서 뻣조각이 떨어져 나왔다는 진단을 받았다.

투수들이 팔꿈치의 미세한 뻣조각이 떨어져 나와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부상이다. 팔꿈치와 발목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라도 뻣조각으로 인한 고통이 심할 경우 제거 수술을 받게 되는데 최근 시즌은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특급 마무리’ 임창용, 2006년 ‘에이스’ 배영수(이상 삼성)다.

이용규도 최악의 경우 이들처럼 뻣조각 제거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다.

KIA는 일단 25일 출발하는 미야자키 스프링캠프 멤버에서 이용규를 제외하고 했다.

서정환 KIA감독은 “(이)용규가 발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뻣조각이 떨어져 나왔다는 진단을 받은 만큼 이번 멤버에서 제외 시켰다”면서 “우선 1주일 뒤에 캠프에 합류

시켜 재활 치료에 전념도록 할 계획이지만, 부상 정도를 좀 더 지켜본 뒤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구단측은 일단 통증에서 회복되기만 하면 시즌을 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뻣조각 부상의 특성상 관절 사이를 맴돌다가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성이 높아 애沉重을 할 수 있는 쳐지다.

‘제2의 이종범’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지난해 타율 0.318, 154안타로 안타왕에 오른 이용규는 KIA에 3년만의 골든글러브(외야수 부문)를 안겨주는 등 팀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서 도루 부문(38개) 3위에 오를 정도의 빠른 발로 상대팀의 내야진을 휘젓는 등 ‘호타준족’으로도 명성을 떨쳤다.

그래서 서 감독도 일찌감치 을 시즌 불바이 ‘우익수-1번타자’로 이용규를 낙점하는 등 ‘무한 사랑’을 보여왔다.

하지만 한해 성적을 결정짓는다는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이용규가 주저앉자, 서 감독의 입술도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 시즌 초반 선발 투수들의 출부상이 새삼 떠오른다는 서 감독은 “현재로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유피한 표정을 지었다.

/박진우 기자 lucky@kwangju.co.kr



‘흑진주’ 기묘한 수비폼

‘흑진주’ 세레나 윌리엄스(미국)가 23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여자단식 준준결승에서 사하르 피어(이스라엘)의 공격을 기묘한 자세로 받아내고 있다. 이날 경기는 세레나가 2-1(3-6, 6-2, 8-6)로 승리했다.



박태환 얼마나 더 클까? ‘마린보이’ 박태환이 23일 강남 성모병원에서 성장판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용은 세계골프랭킹 29위

지난주 보다 3계단 도약

‘바람의 아들’ 양용은(35)이 세계골프랭킹 ‘상승 바람’을 탔다.

23일 세계프로골프투어연맹이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 양용은은 지난주 32위에서 3계단 도약해 29위에 랭크됐다. 20위권에는 첫 진입이다. 양용은은 미국프로골프(PGA) 등 투어대회에 출전

하지 않았으나 상위 펙터들의 부진으로 순위 상승 헤택을 봤다. 양용은은 내달 22일 PGA 투어 월드골프챔피언십-액션주어매치 플레이챔피언십에 출전할 예정이다.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지난 주와 변함 없이 22위를 유지했다.

22일 PGA 투어 불호프크라이슬러클래스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거머쥔 찰리 호프먼(미국)은 지난주 192위에서 92위로 랭킹에 수직 상승했다. 허석호(34)는 93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美교포 부동산업체, 현대야구단 인수 타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의 농협 매각이 좌절된 가운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한국 교포 부동산 투자 전문업체인 ‘프로스테이트 헐딩 컴퍼니’가 현대 인수에 관심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23일 “전날 최근 무렵 전화가 걸려와 해당업체 관계자가 현대 인수 의사를 밝혔다. 규정상 외국 기업이 구단을 소유하는데 걸림돌은 없다. 그러나 기존 구단은 국내 10대 그룹에 드는 기업들이 운영한 만큼 과정으로 적

합한 자세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총장은 이어 “이 업체에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 재무제표와 인수 계획서 등을 검토한 뒤 오는 31일 KBO 이사회에 이를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간 매출 규모가 9천만달러 정도로 알려진 이 업체는 미국·캐나다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를 인수할 경우 연고지로 서울 또는 전북 전주를 험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lucky@kwangju.co.kr

합한 자세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시즌은 아직 개막되지 않았다’

지난 5일 PGA 투어 시즌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이 열렸을 때 미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어 소니오픈과 불호프크라이슬러클래스이 열렸지만 언론과 팬들의 관심은 달아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8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비공식 대회 타깃월드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한 달이 넘도록 콜로라도에서 아내와

함께 스키를 즐겼던 우즈가 26일 개막될 PGA 투어 뷰익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우즈의 ‘대항마’로 힙하는 비제이 싱(피지)과 필 미켈슨(미국)도 출사표를 던져 PGA 투어 2007년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셈이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골프장 남코스(파72·7천208야드)에서 열리는 뷰익인비테이셔널은 우즈에 게는 ‘텃밭’이나 다름없다.

1998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이 대회를 빼놓지 않고 출전한 우즈는 1999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6년 등 모두 네 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한 번도 ‘톱 10’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한편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과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출전해 상위권 입상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